

집요함, 끈기, 멈출 줄 모르는 노력이 야곱의 특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풍요롭지 못했다. 원하는 것을 쟁취하지만 얻는 과정에서 지불한 대가가 너무 크거나 결과물이 빈 껍데기 뿐인 경우가 더 많았다. 끝까지 고집하는 자신만의 삶의 방식은 그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 세겜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야곱이 겪는 불행의 시작일 뿐이었다.

딸은 강간을 당했고 아들들은 살인자와 약탈자가 되었다. 야곱은 더 이상 세겜 근처에 머무를 수 없었다. 칼부림을 시작한 시므온과 레위를 야곱이 책망한다. 야곱이 두 아들에게 하는 말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 창세기 35:30

야곱은 자식들이 살인자가 된 것을 탄식하지 않는다. 딸이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도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친 것이고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들에게 미운 사람이 되게 한 것. 이것이 손에 피를 묻히고 온 시므온과 레위에게 한 유일한 말이다. 이 순간 야곱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자신의 안위와 평판이다. 너무나 많은 부분이 일그러졌다. 야곱 스스로는 현실을 수습할 수 없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야곱은 알지 못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뻘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 창세기 35:1

뻘엘로 올라가라. 뻘엘의 뜻은 ‘하나님의 집’, 야곱이 직접 지은 이름이다. 꿈에서 하나님을 뵈고 말씀을 듣고 베게로 썼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 기름을 부으며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다. 서원도 했다. 야곱이 서원하며 기도했던 기록을 살펴보면 두 가지 사실이 확인된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셨는가. 둘째는 야곱이 얼마나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 창세기 28:20-22

하나님께서서는 응답하셨다. 함께 계시며 지켜주셨고 먹이고 입히셨다.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에 야곱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분노한 라반에게 경고하시고 에서의 마음도 돌려 놓으셨다.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도 주셨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지금까지 움켜쥐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했다. 야곱은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정작 그 자신의 중심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던 뻘엘로 돌아가지 않았다.

말씀을 들은 야곱이 벳엘로 올라갈 준비를 한다. 하나님의 집에 가기 전에 이방신상을 버려야 했다. 각자가 소지하고 있는 드라빔, 귀걸이, 의복들까지 모아 땅에 묻었다. 장신구나 의복에도 이방신상이 새겨진 것이 있기 때문이다. 벳엘로 향하는 야곱에게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야곱 일행을 세겜 지방 누구도 추격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서는 야곱이 이십 년 전에 드렸던 기도에 끝까지 신실하게 응답하신다.